

메이웨더-맥그리거 27일 세기의 주먹전쟁



8월 27일(한국시간)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펼치는 '세기의 대결'은 각자 주종목이 다른 만큼 대전규칙이 최대 관건이었다. 합의 끝에 복싱 룰로 확정했다. MMA선수 맥그리거에게 불리하지만 대신 가벼운 글러브를 쓰도록 해 파괴력의 장점을 살렸다.

복싱룰로 싸우는 맥그리거에 베팅 러시

"맥그리거는 킥도 그래플링도 할 수 없다" 타이슨 등 전문가들 메이웨더 완승 예상 "가벼운 8온스 글러브가 '잭팟' 부를 수도" 격투기 팬들은 맥그리거 KO편지에 베팅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와 종합격투기(MMA) 최고스타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가 8월 27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복싱 룰로 12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49전 49승(26KO)을 기록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링에 오르는 메이웨더와 종합격투기 UFC 라이트급·페더급 2계급 챔피언인 현역 맥그리거(UFC전적 21승3패)의 격돌은 지금 전세계 호사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76년 6월 26일 복싱 세계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프록세스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맞대결이 '세기의 대결'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이후 가장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종 스포츠간의 맞대결이다.

●세기의 대결, 역대 최고의 돈 잔치

세기의 대결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는 실력만큼이나 입이 험한 '트래시토키'로 유명하다. 맥그리거는 2년 전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다 "종합격투기 룰도 불으면 메이웨더를 30초 안에 끝낼 수 있다"며 도발했다. 메이웨더가 2015년 매니 파퀴아오와의 빅매치에서 12라운드 판정승을 거두자 "어느 누가 1억8000만 달러(약2000억원)를 받고 링에서 춤추는 일을 즐기지 않겠느냐"며 독설을 날렸다.

메이웨더는 이런 맥그리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애써 무시했지만, 2015년 9월 은퇴를 선언한 이후 "내가 다시 복귀한다면 상대는 무조건 맥그리거가 될 것이다"며 의미심장한 복선을 남겼다. 둘의 말다툼은 차츰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결국 복싱과 MMA가 만나는 '제2차 세기의 대결'을 만들어냈다.

서로 다른 종목의 싸움이기에 통일규칙이 필

요했다. 대결은 복싱 룰로 펼쳐진다. 규정대로라면 두 사람은 10온스(약283.5g)의 글러브를 써야하지만 이번 경기에 한해서만 8온스(약 226.8g)의 글러브가 사용된다.

글러브가 가벼울수록 선수가 받는 충격이 심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권투 룰로 경기가 진행되는 메이웨더가 글러브를 양보했다. 파괴력에 장점이 있는 맥그리거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해도 자신이 있다는 메이웨더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궁금하다.

대중의 관심이 불리는 곳에는 여지없이 돈 잔치가 펼쳐진다. AP통신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대전으로 2억 달러(약2264억원), 맥그리거는 1억 달러(약1132억원)를 받는다. 경기를 생중계하는 미국 케이블채널 쇼타임은 집에서 경기를 TV로 지켜보는 페이퍼뷰(PV)가격을 89.95달러(약 10만원)로 책정했다. PPV 역대 최고수준이다.

경기 관람티켓도 비싸다. 메이웨더의 프로모션 측에 따르면 8월 15일 티켓판매액이 6000만 달러(약683억원)를 돌파했다. 가장 저렴한 입장권은 2500달러(약283만원)다. 링사이드 좌석 입장권은 1만 달러(약1140만원)다.

●승리 예상은 메이웨더, 베팅은 맥그리거?

전문가들은 메이웨더의 승리를 예상한다. 맥그리거가 어릴 때 복싱을 배웠지만 복싱 룰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전 헤비급챔피언 레녹스 루이스(52·영국)는 "메이웨더가 UFC 파이터와 싸운다. 복서와의 대결이 아니다. 49차례의 경기에서 누구도 메이웨더를 꺾지 못했는데 복싱 경력이 없는 UFC 파이터가 복싱으로 메이웨더를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다. '핵주먹'으로 유명한 복싱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51·미국) 역시 메이웨더의 승리를 예상했다. "맥그리거가 킥도 그래플링도 할 수 없다. 오로지 펀치로 싸워야 한다. 그럼 당연히 메이웨더가 유리하다. 맥그리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며 메이웨더의 완승을 예상했다.

국내 권투전문가나 역대 챔피언들도 모두 비슷한 견해다.

맥그리거는 UFC에서 타격기술이 좋은 선수

로 유명했다. 특히 원소 스트레이트의 위력이 상당했다. 다만 이는 로우키와 함께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 오로지 복싱 기술로만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메이웨더는 권투 역사상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다. 극강의 스피드와 파워를 가진 매니 파퀴아오(39·필리핀)도 메이웨더의 수비를 뚫고 펀치를 명중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기는 기대에 못 미친 졸전이 됐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맥그리거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동안 상대들이 메이웨더를 존경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메이웨더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메이웨더는 "맥그리거의 강펀치가 두렵나고? 왜? 나에게 닿지도 않을 텐데~"라며 여유 있게 대응했다. 결국 메이웨더의 다양한 수비기술을 뚫고 맥그리거가 5회 이전에 얼마나 치명적인 펀치를 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그래서 메이웨더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베팅 업체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 베팅 전문업체 bwin은 메이웨더의 승리에 1.29배, 맥그리거에게는 3.5배의 배당률을 걸었다.

그러나 팬들은 젊은 맥그리거에게 돈을 걸고 있다. 일반 복서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맥그리거가 이기면 쟁길 금액이 많아진다는 속셈도 있다. 이 때문에 만일 맥그리거가 이기면 도박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세기의 대결'승자를 위한 특별한 챔피언벨트도 마련됐다.

마우리시오 슐레이만 세계복싱평의회(WBC) 회장은 8월 24일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보석이 박힌 벨트를 공개했다. 3360개의 다이아몬드, 600개의 사파이어, 300개의 에메랄드가 박힌 벨트다. 메이웨더가 50번째 경기마저도 이기고 전무후무한 무패의 기록으로 전설의 명성을 이어갈지 아니면 맥그리거가 이번을 일으키며 보석벨트의 주인공이 될지.

지금 전세계 스포츠팬들은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25일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 주역' 동아일보 이길용기자 흉상 제막식

이길용기자 흉상, 손기정 동상 옆에 설치

일장기 지운 손기정 사진 게재로 옥고 8월 27일부터 동아일보 무기한 정간 해방 이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창설 한국체육 근대화 위해 선도적인 역할



이길용 기자 흉상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에 앞장선 언론인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의 흉상이 손기정 동상 옆에 나란히 설치된다. 1936년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의 두 주인공이 무려 81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서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체육언론인회와 한국체육기자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이길용 기자의 흉상 제막식을 '일장기 말소 사건' 81주년을 맞는 8월 25일에 진행한다. 행사는 서울 중구 손기정로에 있는 손기정 공원과 기념관에서 열린다. 흉상 제막식과 함께 이길용 기자의 스포츠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포럼도 열린다.

한국체육언론인회와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한국체육 근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이길용 기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흉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체육관련 기관과 단체의 도움 뿐 아니라 독지자의 후원을 받아 4월부터 흉상 제작에 들어갔다.

흉상은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190cm 크기다. 서울시 미술장식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조각가 이용철 씨가 제작했다.

동아일보 체육주임 이길용(당시 37세) 기자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했다.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장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소식을 호의 등으로 말 빠르게 전했다. 이후 '조선의 아들 손기정'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8월 25일 동아일보는 2면에 손기정이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 뒤 내보

냈다. 독자들은 크게 반겼지만 일제는 분노했다. 결국 동아일보는 8월 27일부터 무기한 정간을 당했다.

'일장기 말소 사건'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던 이길용 기자와 현직인 사회부장 등 8명은 약병 높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갖은 고문에 시달렸고,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9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길용 기자는 일제치하에서 언론사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해방 이후 그는 동아일보로 복직해 사무원장을 지냈다. 이 기간동안 한국체육이 근대화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동아일보가 여전히 주축하고 있는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창설한 이가 바로 이길용 기자다.

이길용 기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는 한국체육기자연맹은 한국마라톤 성지인 손기정 체육공원에 이길용 기자 흉상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애국애족 의욕을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또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마라톤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yjyong@donga.com

▶ '손기정-이길용, 81년만의 만남' 1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배편으로 귀국 중이었던 손기정은 싱가포르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교민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해 들었다. 손기정은 비통한 심정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나의 심경을 대변해 준 동아일보에 감사한다. 고초를 겪고 있는 기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해방 후 동아일보에 복직한 이길용 기자는 "운동기자 생활 16년! 이처럼 흥분되고 기꺼운 때가 또 언제 있었으랴. 나는 이 나라의 아들인 손 선수를 왜놈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유니폼 일장마크에서 엄숙하게도 충격을 받았다. 동아지(東亞紙)의 일장기 말살이란 항다반(恒茶飯)으로 부지기수다. 사내의 사시(社誌)라고 할까, 전통이라고 할까, 방침이 일장기를 되도록은 아니 싫었다. 우리는 도무지 실지 않을 속셈이었던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사실 이길용 기자가 일장기를 지운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1932년 LA 올림픽 남자마라톤에 출전한 김은배, 권태화가 끝나는 동아일보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다. 이때는 일제가 알아채지 못해 넘어갔을 뿐이었다.

이길용은 1899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여 인천에서 성장했다. 인천에서 영화학교를 다녔고 이후 서울의 배재학당을 졸업했다. 일본의 도시사(同志社)대학에서 공부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했다. 1919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에 근무하며 상해 임시정부의 반일격문을 수송하다가 일본경찰에 잡혀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1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923년부터 전조선여자정구대회를 주관 운영하는 일에 앞장섰다. 1927년 조선운동기자단을 결성했고 광복 이후 일제에 의해 사라진 대한체육회의 전신 조선체육회를 재건했다. 이길용은 창

씨개명을 거부하여 세 번째로 투옥되었다가 1945년 광복 며칠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되었고 이후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손기정 만세, 남승룡 만세, 조선 만세!'

역사의 시계는 다시 1936년 8월10일 새벽 2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는 다시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몰려왔다. 앞서 중계방송이 끊긴 손기정의 베를린 마라톤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다. 장맛비는 그 해 7월부터 줄기차게 내렸다(8월14일까지 조선 전국 사상자가 총265명, 이재민이 무려 6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8월14일부터는 낙동강이 범람하여 삼랑진 구포 양산 김해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이윽고 동아일보사 사육 2층 창문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손기정 군이 2시간29분12초 올림픽 최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남승룡 군도 3위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그 순간 "와" 함성을 질렀다. 여기저기서 "손기정 만세, 남승룡 만세" 소리가 터져기 시작했다. 그러다 누군가 "조선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만약 일본순사가 들었다면 큰일 날 소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금세 "손기정 만세"가 폭죽처럼 터지며 그 어색한 순간은 '소리의 바다'에 묻혀버렸다. 모두들 우산도 내던져 버렸다. 누가 시킬 것도 없이 모두들 거리로 쏟아져 나가 "손기정 군이 베를린 올림픽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날이 새도록 서울을 장안 곳곳을 누비며 목이 터져라 "손기정 우승"을 외치고 다녔다. 한마디로 그것은 기미년 독립만세 소리와 버금가는 '기쁨의 눈물바다'였다.

김화성 스포츠칼럼니스트

'떠버리' 알리는 링만 빙빙...이노키는 누워서 15회전

■세기의 대결 원조는 알리-이노키전

"동양선수승 날 이기면 100만달러 주겠다" 알리 도발로 성사됐지만 세기의 졸전으로



서 있는 남자, 누워 있는 남자. 20세기 최고의 이종 스포츠 맞대결은 1976년 복서 알리(왼쪽)와 프로레슬러 이노키가 벌인 한판 승부였다. 종합격투기 탄생의 계기가 된 경기였다. 소문난 잔치였지만 먹은 건 없었다.

'제1차 세기의 대결'은 1976년 6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벌어졌다.

최초로 이종스포츠 종목의 대결이 성사된 종합격투기 탄생의 기원이 되는 전설의 경기다. 복싱 헤비급 세계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일본의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와 대결했다. 이 대결을 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각 학교는 학생들을 일찍 집에 보내줄 정도로 엄청난 화제였다.

기자도 그렇게 해서 집에서 TV 위성중계로 이 경기를 지켜봤다.

이 경기가 성사된 것은 알리의 입 때문이었다. '떠버리'란 별명의 알리가 우연히 만난 일본 아마추어 레슬링협회 회장 이치로 하타에게 "동양선수 가운데 누구라도 나를 이기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농담처럼 말한 것이 계기였다. 이 말을 하타

가 일본 매스컴에 전했다. 갑자기 일본 뉴스의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했다. 이때 등장한 선수가 안토니오 이노키였다. 자신이 새로 만든 프로레슬링 단체의 홍보를 위해 알리와 대결하겠다고 했다.

뜻하지 않게 대결이 성사됐지만 문제는 경기 룰

이었다. 양쪽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주장했다. 나흘간 회의를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클린치를 못하게 하고 크레플링 등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합의하다보니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싸우는 어정쩡한 경기방식이 됐다. 경기 내용은 모두가 잘 아는 대로였다. 알리는 서서 링을 돌았고 이노키는 누워서 15회전을 보냈다. 그때 생긴 이노키의 별명이 창녀였다. 알리는 링에 누워만 있다면서 경기 내내 이노키를 이렇게 불렀다.

두 사람은 이 경기를 계기로 친해졌다. 1998년 이노키의 은퇴식 때 알리가 참석했다. 2016년 알리가 사망하자 누구보다 먼저 애도한 것도 이노키였다. 1만4000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찬 도쿄 부도칸에서 벌어진 경기는 전 세계 34개국에 생중계됐지만 세기의 졸전으로 육만 먹었다. 두 선수의 파이트머니는 당시 돈으로 18억엔, 현재 시세로 300억엔이었다. 부도칸 2층 지정석 티켓가격이 1만엔, 가장 비싼 좌석은 30만엔(현 시세 500만엔)이었다.

김종민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안도현 기자 do02@donga.com